

PARK SONGHEE

PARK SONGHEE

Phone +82.010.2071.5212

E-mail gipum108@naver.com

Instagram @parksonghee0109

개인전

2024, 06 Korea Expo culture lounge 초대작가, 포르테 드 베르사유, 파리
2024, 04 Still life;비밀일기, 병원안갤러리, 이천
2023,11 Clay_Pearl,갤러리526,서울
2023,04 Clay_Pearl 책거리,불거리,이야깃거리, 토포하우스, 서울
2023,01 희상, 온실갤러리, 안성
2022,09 일상을 담아내다, 한국공예관 2-3갤러리, 청주
2011,09 박송희 개인전, 일상, Kcdf, 서울

기획전

2023, 사 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X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23, 공예의 계절_봄, 한국공예관, 청주
2023, 새해를 담다, 행복을 담다, 토포하우스, 서울
2021, 한국공예관 기획전, 공예로 꽃 피우기, 한국공예관, 청주
2013, 공예 열정에 대한 12가지 이야기, 한국공예관, 청주
2012, 도화전(4인전), 통인화랑, 서울

기타사항

2022~ 충남대학교 출강

2023, 서울리빙디자인페어, Bosse & 조희선, 코엑스, 서울
2022,12 2022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박송희, 서울
2023, 한국공예관 입주작가
2022,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선정
2010,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워크숍, 미국
2008, 경덕진 Sanbao CeramicWorking Village & 이싱 워크숍, 중국

Solo Exhibition

2024, 06 Korea Expo, invitee, Porte de Versailles, Paris
2024, 04 still life; secret diary, hospital eye gallery, Icheon
2023,11 Clay_Pearl,Gallery 526,Seoul
2023,04 Clay_Pearl Book Street, Things to See, Yagit Street, Topo House, Seoul
2023,01 Invitation, Recall, Greenhouse Gallery, Anseong
2022,09 Captures everyday life, Korea Craft Center Gallery, Cheongju
2011,09 Songhee Park Solo Exhibition, Daily Life, Kcdf, Seoul

Invitation

2023, 4th floo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X Korean Craft Museum, Cheongju
2023, Craft Season_Spring, Korea Craft Museum, Cheongju
2023, New Year, Happiness, Topo House, Seoul
2021, Korea Craft Center Special Exhibition, Flowering with Crafts, Korea Craft Center, Cheongju
2013, 12 stories about passion for crafts, Korea Craft Center, Cheongju
2012, Dohwa Exhibition (4-person exhibition), Tongin Gallery, Seoul

Etc

2022~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 lecturer.

2023, Seoul Living Design Fair, Bosse & Cho Hee-sun, COEX, Seoul
2022, 12 2022 Craft Trend Fair Creative Workshop Hall, Park Song-hee, Seoul
2023, Korean Craft Museum, resident artist
2022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selects young artists
201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Workshop, USA
2008, Sanbao CeramicWorking Village & Yixing Workshop, Gyeongdeokjin, China

전시평론

새로운 평면성: 정지상태의 변증법

변경주(독립큐레이터)

전통과 일상, 자연은 박송희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품 <일상 I>[2011], <일상IV>[2011]는 벽화처럼 제작한 부조 형식의 작품으로 민화적 도상의 소품들과 더불어 20대 작가의 일상을 채우는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개장, 보석함, 꽃, 나무, 가방, 구두, WIFI, 노트북 등 작가의 경험과 회상이 집약된 사물들 사이로 호랑이가 뛰어오르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초현실적 공간이 펼쳐진다. 안과 밖, 크기와 비례, 원근법이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시공간은 전통 회화의 조형원리인 부감(俯瞰)법과 역원근(逆遠近)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대상을 주객의 관계로 보지 않고 그와 일체되는 체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유하려는 작가의 관점을 보여준다.

박송희는 책가도(冊架圖)의 형식적 구성을 통해 과거의 시공간과 의미를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작가에게 책가도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만들 어내던 그 순간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책가도 안의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옛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담아내고자"하는 삶의 풍경이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한 책가도 속 여러 사물은 선비의 고상한 취향뿐 아니라 부귀, 장수, 다산, 관운 등과 같은 현실적인 바람을 담고 있다. 정물화풍의 책가도는 다보각이라는 장식장에 각종 귀중품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묘사한 중국의 다보각경(多寶格景)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다보각경은 오늘날의 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전 서양에서 진기한 사물을 전시하는 공간인 '호기심의 병(cabinets of curiosities)'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양과 서양의 영향을 받은 책가도는 이렇듯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삶의 양식이 입체적으로 공존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박송희는 책가도 작업에서 책장의 칸과 충을 분리함으로써 비어있음, 즉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는 각각의 프레임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와 과거를 SNS에 포스팅하듯"(작가노트) 수집한 기억의 순간들을 종과 횡으로 구성한다. 프레임들은 서로 독립된 채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접속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는 선형적 흐름을 벗어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서사가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서로 다른 역사의 층이 공명하는 박송희의 작업은 동시적이며 다층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비선형적 시간 위에 위치한 사물들은 하나의 의미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으며, 책가도 위의 사물은 '이미' 또는 '아직' 없는 시간으로부터 '지금'이라는 현재성을 획득한다.

한 컷씩 포스팅하듯 구성된 박송희의 책가도는 여러 접속 가능한 이웃 사물들의 배치를 통해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재형의 순간을 만든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이러한 형식은 하나의 비선형적인 텍스트로서, 발터 벤야민의 역사개념인 '정지상태의 변증법' 혹은 '별자리 변증법'을 떠오르게 한다. 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각자 다른 시간대를 가진 별빛들이 모여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사를 지닌 시간과 장소가 함께 모여 있는 평면적 순간으로 지금의 시간을 해석하려는 것을 말한다. <책가도>[2021], <우리의 일상>[2022]에는 녹아내리는 북극을 형상화한 지구본과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알리는 책이 옛 사물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풍요와 안위의 염원이 담긴 옛 사물은 기후위기를 드러내는 현재의 사물과 만나 서로 다른 주파수로 공명한다. 옛 그림 속 꽃과 곤충들은 현재 환경과 기후문제로 인한 변형과 소멸이라는 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실내에서 감상하기 위해 들여온 수석(壽石)은 자연을 재단하고 대상화하려는 인간 욕망이 빚어낸 자연파괴의 현장과 연결된다. 이처럼 책가도 위의 사물들은 서로 다른 배치와 접속을 통한 평면적 풍경을 이루며 현재를 진단하고 읽어내는 좌표로 작동한다.

이번 2023년 공예스튜디오 입주작가 특별전 《사 층, 생각을 더하다》에서 박송희는 반복되는 일상의 의미를 지나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 담아냈다. 늘 그 자리에 있어 지나치는 주변의 사물들은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매일의 반복 속에 조금씩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번 작업에서 작가는 동일한 크기의 원이 겹쳐져 여의주가 나열된 듯이 보이는 여의주 문양을 이용한 흙 작업을 선보인다. 규방 공예에서 조각보나 소품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는 이 문양은 동일한 패턴의 반복 속에 색과 질감의 차이를 두어 창작자의 내면을 표현한다. 흙나전상감기법을 이용한 박송희의 여의주문(如意珠紋) 작업은 하나의 모듈로서의 도자 조각을 기본으로 복제와 반복을 통해 확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이 동일성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매 작업과정은 유약의 발색, 수축률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차이의 결과를 드러낸다. 이처럼 반복 속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방식은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위치를 바꿔서 배치하지 않으면 기존의 생각과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배치와 접속은 인간의 사고를 규정하는 표상작용을 탈피하며 나와 타자,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오래된 미래』[2007]를 쓴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는 현대사회가 처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탈중심성과 다양성 그리고 직접성과 관계성을 제시한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에는 현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있다.” 작가의 시선이 닿는 현재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을 넘어서는 일이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 속에 '나'와 대립되는 수많은 타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속가능한 현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송희의 작업은 우리를 한 번도 가 보지 않는 시간, 한 번도 가 있지 못한 공간으로 데려간다. 그곳은 과거일수도 미래일수도 있으며 혹은 현재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작은 순간들의 총합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일상의 순간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박송희는 사물과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기억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한다. 이로써 책가도 안의 평평한 사물들은 무한한 우주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작업노트

나른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던 방 한 쪽의 자개장이 떠오르는 어린 시절, 그 추억 속 자개장을 떠올려본다. 화려함 속 단정하고 정갈한 자개의 자태는 우리의 기억 한 쪽에서 은은한 미소와 함께 아련한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공예사 수업시간에 다시 접한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여전히 아름답게 눈부셨지만 습기에 약해서였을까? 유행이 지나서였을까. 나전 장은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자개의 영롱한 매력을 지키고자 타발법과 끊임질 기법을 도자기법에 적용한 흙 나전 상감기법을 만들었다. 한결같이 빛나는 고상한 자개와 같이 모두의 희망을 고이 간직하고자 한다.

On a drowsy afternoon as a child, I remember the mother-of -pearl that sparked on the side of the room. The neat and tidy figure of the mother-of-pearl in splendor shows a dim childhood with a subtle smile on the side of our memory.

When I was in collage, I encountered Najeon chilgi(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again.

It was still beautiful, but at some point, it disappeared from our daily lives, perhaps because it was weak in moisture or out of fashion.

To protect the brilliance of the shell, I created a **Clay Based on Pearl Inlaid Work** that applied the punching method and the cutting technique to the pottery method.

I want to cherish everyone's hopes like a noble shell that shines consistently.



Mother-of-pearl
Techniques

나전 기법



Ceramic Material

도자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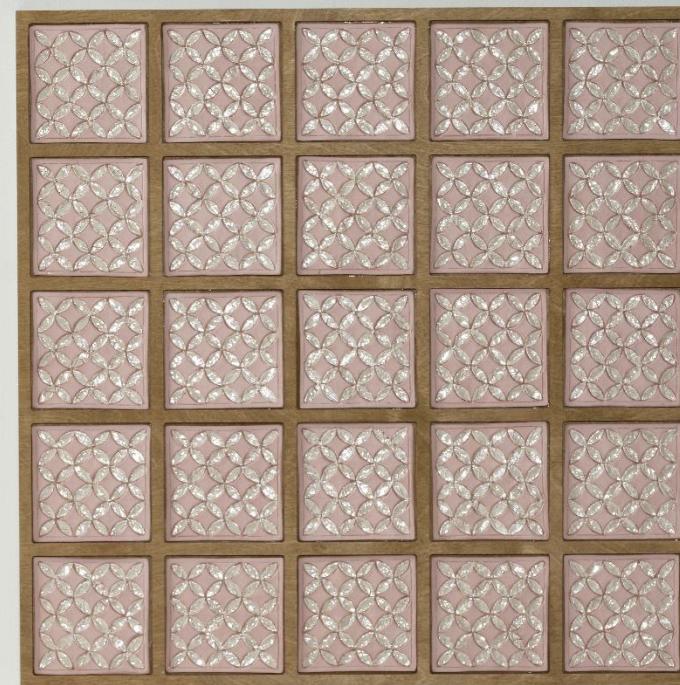
Clay Based on Pearl Inlaid Work
흙나전상감기법

Clay_Pearl





2023, Clay_Pearl, 각9.5x9.5x9.5cm



2023, Clay_Pearl, 85X60x85cm



2023, Clay_Pearl, 45X20x25cm

작업노트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 시대를 짐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진이 없던 옛 과거라면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묘사한 '회화'가 아닐까.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만들어내던 그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인 책가도. 책장에 꽂힌 책과 정물은 그 시절 누리던 옛 조상들의 풍요로운 순간을 오롯이 담아낸다.

나는 이를 현시대에 맞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책가도의 책장이라는 공간 프레임을 유지하며 다양한 소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과거와 현재에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사물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이를 표현한 작업은 고려시대 나전상감과 청자상감 기법에 근간을 둔 흙나전상감 기법이다. 이는 '흙'이라는 전통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살려 만들어낸 나의 기법이다. 흙나전 상감기법은 두 가지 전통 기법을 응용하여 고안해 내었듯이, 소품과 공간이라는 두 요소의 미학을 조화롭게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자연에서 나온 고전 회화의 색감으로 사물의 매력을 나타내고 책가도 내 사물을 다초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와 과거를 Sns에 포스팅 하듯 책장의 프레임에 보여주고자 하였다.

What is the way to guess the era we have not experienced? If there were no photos in the past, it would be a 'painting' that was directly portrayed above all else.

Chaekado is a painting that shows the moment when we created our unique traditional culture. The books and still lifes on the bookshelves capture the rich moments of our ancestors who enjoyed them in those days.

I looked at it from a new perspective tailored to the present age. It was approached as a method of composing various props while maintaining the spatial frame of the bookcase of Chaekado. It started with a natural object that maintains its beauty in the past and present even as time has passed, and gradually expanded its scope to objects.

The work that expresses this is an earthen braid inlay technique based on the celadon inlay technique and mother-of-pearl inlay technique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is my technique that made use of the charm of the traditional material called 'soil'. As the earthen najeon inlay technique was devised by applying two traditional techniques, it attempts to harmoniously show the aesthetics of the two elements: props and space.

In addition, by expressing the charm of objects with the colors of classic paintings from nature, and by expressing my objects in a multi-focal style, I tried to show the present and past that we see in the frame of the bookshelf as if we were posting it on Sns.



2021, 책거리, 700x130 cm



2021, 2021책가도,
2023년1월 메종오브제 잡지연출,
120X110cm



2023, 부귀영화, 87X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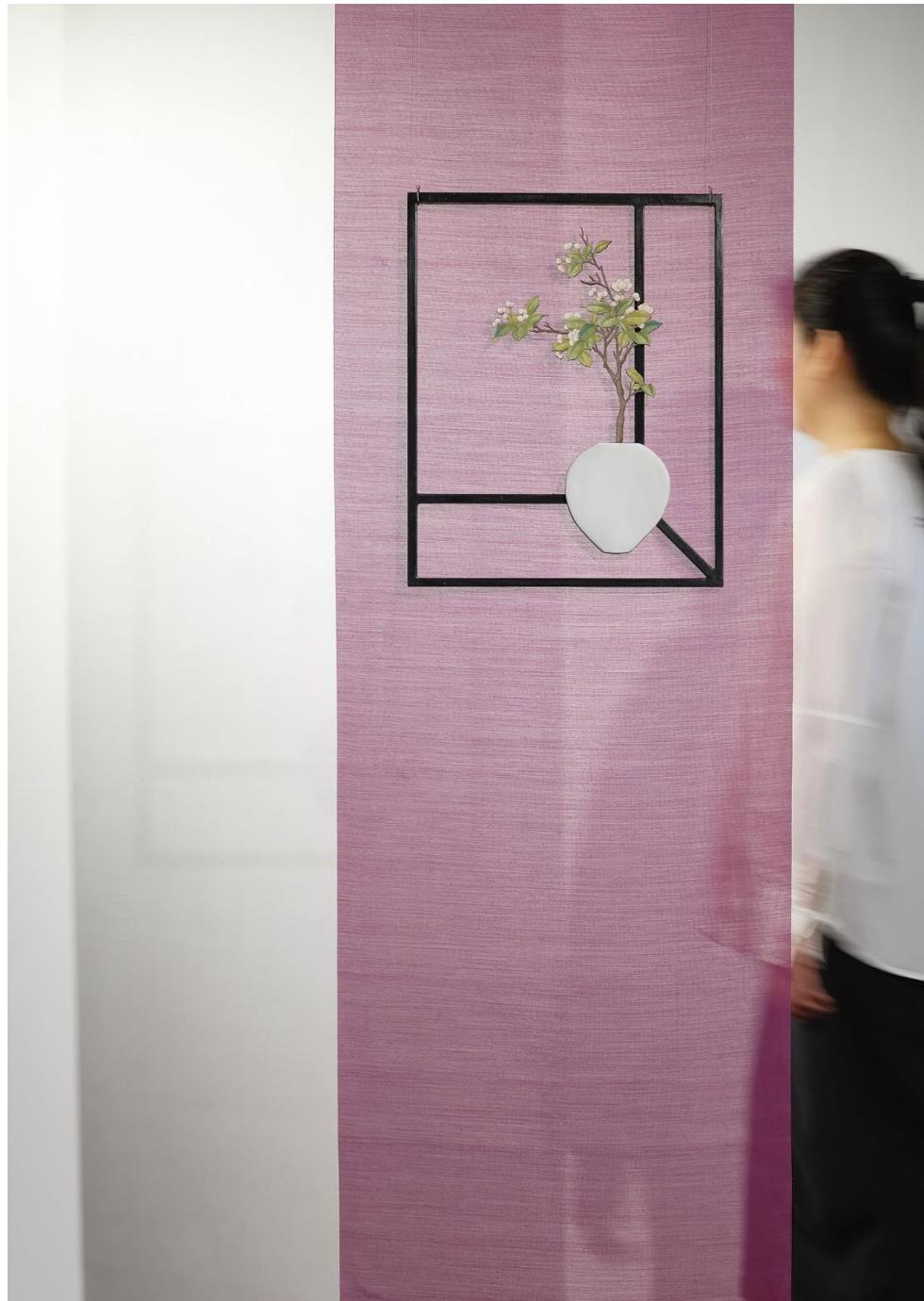
2023, 청아, 87X99cm



2023, 문방사우, 87X96cm



2023, 단아, 87X96cm



2023, 꽃사과나무, 가변설치



2023, 지나치는 것들, 700X130cm(가변설치)



2023, Jewel box , 각 30 x 22cm



2023, 목련, 90 x 100cm



2023, 붉은열매, 87X96cm



2023, 단아, 90X40cm



2023, Clay_Pearl 매화, 63X68cm



2023, 찻상_목련, 50X48cm



2023, 찻상_꽃사과, 50X58cm



2022, 참새와 블루베리, 140x120cm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시는 친정부모님, 올해에는 참새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소망하며.

Mother who is a blueberry farmer, I hope that there will be no damage caused by sparrows this year.



2022, 까치와 호랑이, 90x90cm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까치와 호랑이 민화와 책거리 민화의 융합

A fusion of folk tales of a magpie and a tiger who wish to always be filled with happiness and the folk tales of bookshelf

작업노트

과거는 기억 속에 남겨져 지금의 나를 만드는 커다란 요소다. 그 모습을 되살리며 그 때의 감정과 경험을 고스란히 되새겨 볼 수 있다.

사람마다 기억을 회상해 내는 방법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그 속에 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나는 자칫 지나가기 쉬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주변의 자연물들로 과거를 회상해본다.

The past is a big factor that is left in my memory and makes me who I am today.
By reviving that image, I can reflect on the feelings and experiences of that time.

Each person has a different way of recalling memories. Many people recall the past through various senses and feel the emotions in it again.

I reminisce about the past from repetitive daily life to surrounding nature.



2022, 결혼식, 80x110cm



2022, 春-봄-Spring, 80x70cm



2022, 夏-여름-Summer, 80x83cm



2022, 冬-겨울-Winter, 80x85cm



2022, 秋-가을-Autumn, 80x85cm



2023, 오디, 57 x 87cm



2023, 유주, 40 x 94cm



2023, 몬스테라, 50 x 81cm



2023, 아카시아, 48 x 107cm



2023, 화병도, 180X109cm



2023, 앤카이셔스,
64 x 61cm
45 x 43cm



2023, 겨울,
50X64cm
43X47cm



2023, 소반,
49 x 63cm
30 x 20cm

작업노트

단정한 구성으로 책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아름다움을 담고있는 민화, 책가도 [冊架圖].

조선시대 왕실에서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고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물화 이다.

나의 염원은 이 책거리를 통하여 투영되었다. 나를 둘러싼 일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라는 존재에서 '가족' 그리고 점차 넓어져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둘레라는 그 고귀한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일상을 담아내다]-우리의 일상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던 2022년 여름. 한층 더 강해진 햇살과 느닷없이 쏟아지던 비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여름과는 달리 낯설게만 느껴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점차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며 인지되는 그 변화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사계절은 어느덧 여행지에서만 느꼈던 이국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어색하기만 한 올 여름을 지내고 나니 평범한 나의 일상이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잔잔한 하루,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작업에 담아본다.

The folk painting, Chaekado expresses various beauty like a book and bookshelves with a neat composition.

It is a representative still life painting contains everyone's wish(from King to slaves) in Chosun.

My wish was projected through this Chaekado. My day life is surrounded by the time started from 'me' and 'my life'. It expends to the concept of 'us'.

I hope you to reflect on the precious and noble values through my craft.

CAPTURING EVERYDAY LIFE

The summer of 2022 was felt especially long and boring. The stronger sunlight and the rain felt strange, unlike the summer I knew.

An abnormal climate is a change by rising temperatur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our four seasons are turning into exotic looks that we only felt in our travel destinations.

After this awkward summer, I felt my normal daily life was no longer easy to keep.

I put my heart into my work to cherish our calm day and its preciousness.



2022, 우리의 일상, 설치전경, 가변설치

작업노트

작업을 하는 것도,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컴퓨터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모두 나의 일상이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일상은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본인은 이야기보따리를 만들어 그 상황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물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나전칠기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도자기법으로 표현하는 도자벽화로 이야기거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Working, shopping, traveling, spending time in the kitchen, working on a computer, or drinking coffee are all my daily routines. It is not a fancy or special daily life, but in ordinary daily life, I want to make a story and express the objects that can represent the situation with pictures, and I would like to solve the story with a ceramic mural that expresses the brilliant beauty of lacquerware using the pottery method.



2011, 일상 I, 101x36cm



2011, 일상IV, 203x78cm



2011, 일상 V, 40x78cm